

그림자극으로 본 서울 이야기



공연관람후, 무대 앞으로 나온 어린 학생들이 OHP 그림자 인형들을 살펴보고 있다.

“보신각이 문화재라고? 에이~ 말도 안돼. 문화재라면 파리의 에펠탑, 이집트의 피라미드 정도는 돼야지.”

서울 달팽이 찌르가 투덜댄다. 처음 서울나들이를 하는 시골 친구 미르에게 63빌딩, 코엑스 몰, 놀이동산 등 서울의 화려한 모습을 뽐내고 싶었는데 보신각을 보자니. 어쩔 수 없이 미르를 따라 종로 보신각으로 향한 찌르는 영 역표시를 하겠다며 중을 향해 오줌을 쏘다. 쉬~. 순간 찌르와 미르의 등위의 집이 사라진다. “어? 우리의 집이 어디갔지?”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이들에게 무학대사의 진신인 행상 아저씨가 다가와 보신각종이 화났다고 말한다. 그 화를 풀기 위해서는 서울의 보물 5개를 찾아야 한다는데...

서울시의 후원을 받아 무료로 공연되는 교육극단 달팽이(대표 박주영)의 채색그림자극 ‘클릭! 역사게임 서울 이야기’(1월 31일까지 대학로 인클아트홀 1관)는 실루엣(silhouette), 즉 인형의 그림자를 스크린에 비쳐 형(影)의 그림자로 연기하는 그림자극이다.

서울이야기는 기존 그림자극 형식에 OHP채색기법을 접목해 주인공들의 움직임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다. 또한 OHP에 컴퓨터작업이나 빛이 투과되는 스텐드글래스물감 등을 입혀, 대형화면에 투영시키고 있다. 이러한 작업은 소형화면에 투영돼 극의 느낌을 생생히 전달할 수 없었던 전통 채색그림자극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색의 느낌을 좀더 명확하게 전달해 마치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는 듯한 효과를 발휘한다.

다시 극으로 돌아가 찌르와 미르는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서울의 5대 보물을 찾아 나선다. 행상 아저씨가 건네 준 역사사계 뿌뿌뿌와 함께 서울의 동서남북을 지키는 사신(四神) 청룡, 백호, 주작, 현무를 만나는 찌르와 미르.

이들은 서울의 4대 문인 흥인문(興仁門), 숭례문(崇禮門), 돈의문(敦義門), 홍지문(弘智門)과 종각인 보신각(普信閣)을 통해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다섯가지 도리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을 배우게 된다. 그러나 보물은 아무리 살펴봐도 찾을 수 없다. 이때 한양천도의 주역이었던 무학대사가 찌르와 미르 앞에 나타난다. 그리고 한마디를 툇 던지고 사라진다.

보물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라고, 이미 네 개의 보물은 찾았을지도 모른다고. 이에 힌트를 얻은 찌르와 미르는 4개의 문이 보물이며, 처음 여행을 시작한 종로의 보신각종이 마지막 5번째 보물임을 깨닫는다. 그리고 극장 안 가득 “깨달음이 아무리 깊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만 못하다”는 무학대사의 음성이 울려 퍼진다.

관객들은 찌르와 미르의 여정을 통해 서울이라는 도시가 갖고 있는 역사와 그 안에 담긴 정신세계를 하나씩 배워간다. 그리고 잠다른 보물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같이 예술장르에 존재하는 다양한 극적기술과 방법을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T.I.E(Theatre in Education)라고 한다. 서울이야기는 T.I.E 방식을 통해 관객과 배우가 극장 안에서 의사소통을 나누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다. 또한 공연 전 Pre-Workshop과 공연후 Post-Workshop을 통해 공연에서 다뤄지는 공연목표와 제기되는 문제들에 적극 참여한다. 즉 한양천도와 사대문과 보신각의 축조가 동양의 음양오행 사상에 입각한 도시계획이었다는 것, 그 안에 국가의 사상이 가시적인 형태로 도출되고 있는 철학적 사고까지 엿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공연 후 직접체험을 통해 인형극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김은경 기자 lipck@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그림자가 역사를 가르치네

B.C 120여년 중국 한(漢)나라 무제(武帝)시대. 사랑하던 부인을 잃은 무제는 비탄에 잠긴다. ‘환영만이라도 나타나준다면...’ 결국 무제는 궁중의 무술사를 불러 왕비의 영혼을 불러낼 것을 명한다. 그러나 죽은 이의 영혼을 불러낼 재간이 없는 무술사는 왕비의 모습을 닮은 인형을 만들어 벽면에 비추는 꾀를 낸다. 어두운 등불 속에서 사랑하는 이의 모습을 본 무제는 비로소 왕비를 향한 모정(慕情)을 달랬다고 한다. 그렇게 시작된 그림자극은 2100여년의 세월을 훌쩍 뛰어넘어, 2004년 OHP(투명필름)을 이용한 채색그림자극으로 재탄생했다.



2100여년전 그림자극 OHP로 재탄생 / 대형스크린 통해 생생한 느낌 전달
서울시 후원 교육극단 ‘달팽이’ 공연 / T.I.E 방식 관객 배우 함께 문제 해결

인터뷰



교육극단 ‘달팽이’ 대표 박주영

▶ OHP채색그림자극도 T.I.E라는 교육형태도 생소하다.
OHP채색그림자극은 중국 전통채색그림자극을 관객들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 기술로 변형시킨 것이다. OHP채색기법은 디지털 뮤지컬 ‘라이언 킹’ 제작에 참여한 인형 제작 전문가 스티븐 캐플란이 처음 고안한 기법으로 국내에는 작년 8월 세계적인 교육연극축제 ‘달라!연극축제(DALA festival)’에서 첫 선을 보였다. 이후 10월 전주 세계소리 축제에 OHP그림자극 ‘나무꾼 할아버지와 이상한 샘물’이 대중에게 선보여 그 가능성을 인정받았고, 12월에는 서울시 후원으로 서울 시내 10여군데 구민회관에서 채색극 ‘보신각 종소리’가 서울에서 울려 퍼졌다’가 순회공연 됐다. 아직 도약단계이지만 T.I.E교육과 함께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 T.I.E는 교육연극으로 쉽게 말해 극을 통해 사회와 의사소통을 하는 방식을 말한다.

교육연극으로 열린사회 공동체 지향 사회문제도 인형극으로 다룰 예정 학교 커리큘럼으로 활용될 전망

▶ 교육연극하면 어린이극이라는 생각이 강하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것 같다. 서양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성인극들이 성행하고 있으며, 기업체들의 사내연수 프로그램 등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국내 역시 본 극단과 한국교육연구학회 등을 중심으로 기업 및 성인단체를 대상의 사내연수, 문제 해결을 위한 공연 및 연구 프로젝트 수행 등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여성문제를 다룬 ‘노라의 선택’ 같은 사회문제들도 인형극으로 표현되고 있다. 교육연극은 T.I.E와 가장적 상황에서 직접 체험해 보는 D.I.E(Drama in Education)로 나뉜다. D.I.E는 쉽게 말해 역할극이다. 현재 본 극단이 서울시 교육청 특수지무연수기관으로 선정돼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D.I.E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D.I.E는 학교교육활동 및 심리치료, 상담 등에 활용될 수 있다.”

▶ 앞으로의 발전방향은?
교육연극은 1965년 영국에서 시작돼 현재는 교육운동의 일환으로 전세계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교육연극은 교육대상과 교육환경, 교육주제, 교육목표에 따라 극의 형식을 자유자재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 곳곳에서 활용될 수 있다. 국내의 교육연극은 지난 10년 전보다 양적, 질적으로 많이 발전했다. 현재는 학교교육의 커리큘럼으로 활용하기 위한 교육연극 교재가 계속 연구·개발되고 있다. 또한 관·공서 및 자치단체들과의 연계를 통한 사회적인 열린교육 방안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김은경 기자

서울대출신 공학도가 풀어낸 사주의 새로운 개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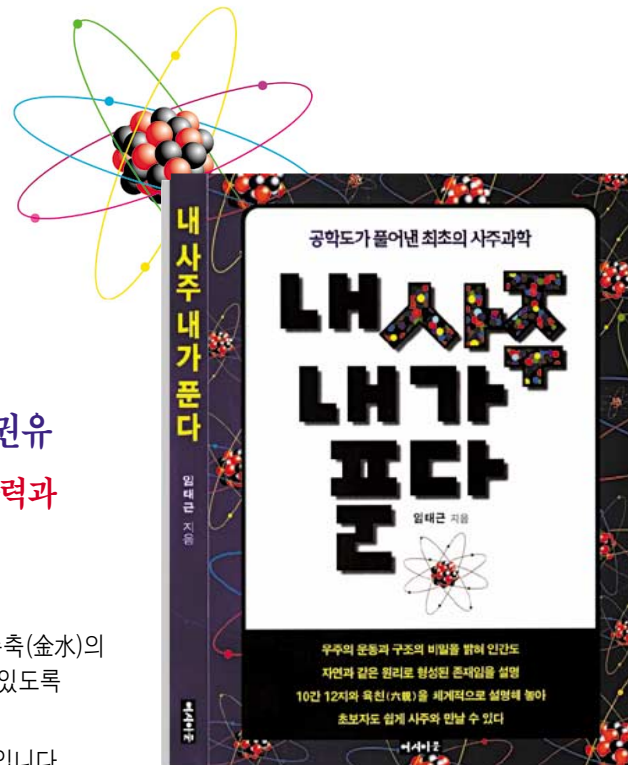
내사주 내가 풀다

10만 12천은 순환하는 우주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 甲木: 지표를 뚫고 나오는 힘
- 乙木: 옆으로도 퍼지는 힘
- 丙火: 밝게 빛나는 광선
- 丁火: 조용히 타오르는 불
- 戊土: 광활하고 거친 대지
- 己土: 부드럽고 낮은 땅
- 庚金: 거친 원광석
- 辛金: 정교하게 연단된 연장
- 壬水: 시원하게 흐르는 물
- 癸水: 이슬 같은 생명수
- 寅木: 햇살이 비치는 골짜기 숲
- 卯木: 꽃이 아름답게 핀 초원
- 辰土: 바깥은 건조하나 안은 습한 늪지
- 巳火: 화려하고 번성할 도심지
- 午火: 불꽃같은 정열의 장소
- 未土: 문화의 산물을 저장 및 중계하는 장소
- 申金: 물이 샘솟는 구획된 도시
- 酉金: 결실과 냉철함이 있는 곳
- 戌土: 낙엽 지고 매마른 땅
- 亥水: 생명이 숨쉬는 얇은 바다
- 子水: 고요하고 깊은 바다

- 새해를 맞아 자신의 사주가 궁금한 분에게 일독을 권유
- 육친(六親)만 알아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며 어떤 능력과 자질을 갖고 있는지 밝혀낼 수 있다.

이 책은 자연의 순환하는 관점에서 사주를 분석하고 팽창(木火)과 수축(金水)의 관점에서 중화용신(中和用神)을 설정하여 독자 스스로 운명을 풀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주는 조부모 부모 본인과 자식의 4대에 걸쳐 진행되는 대하드라마입니다.



임태근 지음 / 468페이지 / 336면 / 값 12,000원